



**(주)다스텍의 주요 사업 영역 소개와 금년도 및 내년도 사업전망과 더불어 주요 경영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스텍은 전자파 필터 제조와 전자파 시험인증 신규사업인 로봇 배틀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2005년 사업은 작년에 비해 매출은 약간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06년에는 매출 및 수익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로봇 및 전자파 관련 제품의 매출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주)다스텍의 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스텍은 과거 “동안전자”란 이름으로 81년 설립되어 국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자파 방지용 제

품인 Noise Filter를 생산, 일본에 납품하면서 전자파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전자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전자제품의 전자파 시험을 해주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등이 다스텍의 전자파 방지용 필터를 공급 받으면서 다스텍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스텍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02년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투자를 감행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전자파 시험연구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전자파관련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고객이 전자파로 인한 문제 발생시 다스텍이 전자파 시험과 대책, 부품공급(병원으로 치면 진단 수술 및 처방 약물투여)등으로 전자파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스텍의 핵심기술은 20여년에 걸친 전자파 시





황영재  
다스텍 대표이사 회장

경력

- 1985. 02 한국 외국어 대학 졸업
- 1987. 02 (주)동안전자 일본 기술 주재원
- 1991. 04 와세다대학 졸업 및 (주)동안전자 개발실장 부임
- 1996. 02 (주)동안전자 용인 EMC 종합연구소 팀장
- 1999. 11 (주)동안전자 연구소 팀장 및 수출 담당이사
- 2001. 06 (주)다스텍 대표 이사 취임

을 차지할 만큼 수출지향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이는 전자파의 규제가 국내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매출이 일부 줄어 들기도 했으나 최근 일본 및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기조가 조성되고 있어서 수출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시장의 활성화와 세계적인 생산기점의 입지가 굳어지는 등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1995년과 2000년 중국 청도와 천진에 현지법인 공장을 설립하여 글로벌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향후 로봇도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하고 양산은 중국에서 하는 등 핵심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양산 및 중국시장 개척은 중국에서 하는 등 역할 분담으로 글로벌 경영체제를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주)다스텍의 중장기 비전과 더불어 발전 Roadmap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스텍의 중장기 비전은 전자파 분야의 세계최고 기업으로 성장과 지능형 로봇 분야의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파 분야의 세계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선 세계적인 전자파 시험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득해야 하고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전자파 방지 필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인증분야에선 다스텍은 이미 유럽, 일본, 독일 등의 국가로부터 전자파인증시험 기관이란 인증서를 받았고 품질과 가격부분은 중국에서의 양산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품질은 ISO 9001, 14001등의 인증을 득함으로써 세계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 딛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능형 로봇분야의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성과로 특허를 4건 등록하고 이제 내년이면 신제품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다스텍은 과거에도 남들이 하지 않은 전자파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였 듯이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